

“입소 문턱 높아”...자치구 동물보호센터 효과 ‘글썩요’

광주시, 보호소 포화 막기 위해 올해초 북구·광산구에 설치 동물병원 위탁 한계·수용 조건 까다로워 13마리 입소 그쳐

광주시가 동물보호소 포화를 막기 위해 올해초부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센터)를 도입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달 평균 1~2마리만 입소하고 있어 동물보호소 포화상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서다.

7일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에 따르면 북구(5월부터)와 광산구(3월부터)에 도입된 센터에 현재까지 입소한 유기동물은 총 13마리 뿐이다.

북구의 센터에는 3개월 동안 2마리, 광산구의 센터

에는 5개월동안 11마리가 입소한 것이다.

광주시는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동물보호소로 유기동물이 몰리면서 포화상태가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를 도입했다.

지난해 북구와 광산구에 신고돼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유실동물은 각각 701마리, 830마리에 달한 점을 고려해 북구와 광산구의 동물병원에 센터를 위탁운영한 것이다. 이곳에 입소한 동물들은 10일간 머물다가 보호소로 옮겨진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센터에 입소되는 유기동물 수가 현저히 적어 동물보호소 포화상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당초 위탁센터를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들은 동물병원에서는 질병치료가 빠르고 유기동물의 주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입양도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수용조건이 더 까다로워 입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리 당 지원 예산이 20만원(센터당 한해 최대 100마리)으로 책정돼 실질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고 교통사고 등 다친 동물들은 입소가 안된다. 전염병에 걸린 유기동물의 경우 동물병원에 두기를 꺼려해 오히려 동물보호소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또 동물병원의 공간이 협소해 대형견은 받지 않고 있다. 북구의 경우 고양이와 강아지는 합사할 수 없

고 고양이가 먼저 입소하면 강아지는 받을 수 없다.

결국 입양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좋은 유기동물만 센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동물단체의 지적이다.

지자체 센터 담당자는 “상태가 좋은 동물 위주로 받다보니 입소 수가 적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동물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소는 여전히 포화상태다. 현재 보호소에는 수용 가능한 350마리를 초과한 480마리가 입소돼 있다.

지난 5일에는 16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한꺼번에 입소했으며 불철(4월-5월) 한달간 191마리의 새끼고양이가 입소하기도 했다.

새끼고양이 특성상 하루 5번 이상 수유를 해야 하지만 보호소 인력의 한계로 관리되지 못해 55%

에 달하는 98마리가 자연사했다.

이같은 이유로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이 안락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호소 포화로 관리되지 못한 강아지 2마리는 진드기를 이유로 입소 당일(7월 3일) 안락사되기도 했다.

안락사를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거란 기대를 받은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현조 광주동물보호소장은 “동물보호소에 케어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올해 6월까지 1600마리의 동물들이 보호소에 등록됐는데 이중 센터에 입소한 동물은 10마리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시원한 무지개 6일 담양군 죽녹원 광장 앞 바닥분수에서 색색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금속 화재 진압하는 팽창질석 ‘전국 최저’

북부소방서만 18포 보유 그쳐

광주·전남에서도 경기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같은 ‘금속화재’ 우려가 높지만, 소화약제 보유량이 크게 부족(6월27일자 광주일보 6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보유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방서의 팽창질석 보유량이 18포(1포당 100ℓ)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화재는 금속화제로 물로 진화를 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폭발에 이르게 한다. 소방청 대응매뉴얼에도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 소화약제로 진압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팽창질석은 광물의 일종인 질석을 가공해 액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발화점에 산소와 접촉을 차단시켜 진화를 하는 것이다. 팽창진주암과 마른모래도 같은 역할을 한다.

광주지역 소방서에는 마른모래 394포(1포당 10kg), 팽창질석 18포, 팽창진주암 19포(1포당 100ℓ)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팽창질석은 전국 보유량(4849포)의 0.37%밖에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또 3개 소화약제 모두 광주북부소방서만 보유하고 있어 타자치구에서 긴급한 금속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남은 여수와 광양에만 마른모래(233포)를 보

유하고 있었으며 팽창진주암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남은 팽창질석(북포 50포, 여수 180포, 순천 93포, 광양 44포, 담양 152포, 화순 35포, 고흥 32포, 곡성 21포, 장성 28포 등)은 658포를 구비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마른모래는 수분관리가 어려워 금속화재 소화약제보다는 동절기 제설과 미끄럼 방지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남 소방서에서 보유한 실질적인 소화약제는 팽창질석 658포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소방서에서 소화약제조차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금속화재의 경우 초기 화재진압이 중요한 만큼 조속한 소화약제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

조선 태종 때 간행 ‘도은선생집’ 보물 지정

전남대 소장 보물 2점으로 늘어

조선 태종 때 간행된 ‘도은선생집’(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최문홍)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이 역사·학술적 중요성을 평가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돼 고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전남대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은 고려말 간행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제6’에 이어 2점이 됐다.

도은선생집은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와 함께 고려 삼은으로 꼽히는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의 시문집이다.

1406년 조선 태종의 명으로 간행된 ‘도은선생집’은 조선시대 왕명으로 간행된 첫 번째 문집으로, 현재본이 드문 희귀본이다. 지난 2006년 동일 판본이 보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남대 소장본은 판본에서 누락된 중국 학자들의 서문과 발문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선



초 전래본 가운데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관련 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이동과 인출 불사 시기를 알 수 있는 원천 정보를 담고 있다.

최문홍 도서관장은 “이달 중 보물지정 기념주관을 정해 도은선생집 원본을 도서관 로비에 전시할 계획”이라며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 발굴과 연구자, 지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도서관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2종을 비롯해 5만여 점에 달하는 고문헌을 보유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전남 ‘한증막 무더위’에 장맛비 지속

광주·전남에 덥고 습한 ‘한증막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산발적인 장맛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에 이번주도 장마전선과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7일 예보했다.

8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8~30도를 보이고, 9일 아침최저기온은 23~24도, 낮 최고기온은 28~30도에 분포해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다.

낮 시간 오후 무더위가 꺾이지 못해 잠 못드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겠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장맛비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 장성과 담양 등 전남 북부 지

역에 8일 오전 5~20mm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소강상태에 접어들겠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9일엔 광주·전남에 10~4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웠다.

다만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가 불확실해 장맛비의 예측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형성된 비구름대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커 강수량과 강수시점 예보가 빗나가고 있다”며 “장마 기간인만큼 최대한 정확한 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